**# 프롤로그(굶느냐 나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인공 시점)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은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안전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는 중이지만…. 식량이 떨어져간다…

이대로라면 이곳이 안전하다고 해도 굶어죽을것이다…..

‘안되겠어… 근처에 먹을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 튜토리얼 - 마트에서 만난 그 소녀**

혼자서 생존해가던 주인공은 우연히 생존자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 그녀는 염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르테였으며,

홀몸인 주인공에게 호의를 보이며 다가왔다.

'마트까지 오는동안 운좋게 몬스터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겠지.........'

?? - 저기.......

주인공 - 으앗...!!!

소라 -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내 이름은 '소라'라고 해. 너도 식량을 구하러 온거니?

주인공 - (끄덕)응.... 너도 식량을 구하러 온거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위험하진 않았어?

'우와..... 깜짝이야..... 몬스터인줄 알았네...'

소라 - 나는 염력을 사용하는 아르테라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물자를 챙기던 중,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카메라를 손에 들게 되었고, 그 순간 엄청난 굉음이 들리며 건물 잔해를 조종하는

헤로도의 습격을 받게 된다.

***쿠콰과광***

(여)주인공 - 꺅......!! / (남)주인공 - 으악....!!

소라는 염력을 사용해 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헤로도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아무 사이도 아닌 날 위해 싸우고있어......어째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소라’의 모습을 숨어 지켜보고 있던 순간,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모습을 사진기로 찍어라!"**

주인공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소라’의 모습을 사진기로 찍었고, 그 순간 밝은 빛과 함께

‘소라’의 힘이 강화되었다.

소라 - (동공이 확장되며)...!!!!!! 힘이.... 강화되었.....어...?!

그 덕분에 ‘소라’는 손쉽게 ‘헤로도’를 물리쳤으며, 주인공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소라’는 **아르테와 생존자들의 쉘터**에 주인공을 초대한다.

소라 - 와~ 아슬아슬했는데, 엄청난 빛과 함께 내 힘이 강화된거있지~!!!

소라 - 그거.... 네 능력인거지?

주인공 - 모르겠어... 누가 네 모습을 사진기로 찍으라고하는 말이 들렸는데....

소라 - 어찌되었든 덕분에 적을 손쉽게 해치울 수 있었어~!!

소라 - 너만 괜찮다면 우리 쉘터에 초대하고싶은데... 어때..?

주인공 - 나는....좋아..!!...고마워…

**— ‘소라’ 수집 —**

**#1-1 쉘터로 가는 길**

주인공과 ‘소라’는 마트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 곳곳에 포진해있던 몬스터들을피해 쉘터쪽으로

도망친다.

**#1-2 쉘터에서 알게 된 친구**

쉘터에는 처음으로 투카디와 접촉한 동물, 고양이 ‘테미’가 있었고, ‘투카디’의 능력에 의해

사람과 소통할 수 있었다.

테미는 초대 ‘아르테’이지만 ***단순 실험을 위한 접촉이었던 탓에 변이***를 일으켜

인간과의 의사소통 외에는 특별한 능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테미’를 통해 ‘투카디’들은 자신들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고,

테미를 위주로 아르테들과 생존자들이 모여 헤로도에 맞서싸우는 **<아리스>** 라는

그룹이 신설되었던 타이밍에 쉘터에 돌아온 소라와 주인공.

소라 - 얘들아~ 나 왔어~!! 여기는 마트에서 만난 친구~!!

주인공 - 안…녕?

테미 - 어서오라옹~ 내 이름은 ‘테미’ 만나서 반갑다옹

‘소라’는 주인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능력을 강화시킨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고,

‘테미’는 주인공이 극비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 루카>의 대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이후, 본격적인 ‘헤로도’ 소탕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1-3 나도 몰랐던 나의 비밀**

(주인공시점) ‘테미’는 나를 따로 불러내어 나도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내용은 ‘투카디’들이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 루카>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2-1 새로운 ‘아르테’를 찾아서**

쉘터에 있는 인원으로는 ‘헤로도’ 소탕작전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테미’가 길냥이였던 시절에 보았던 주변 지형들을 토대로 분산되어있을 ‘아르테’를 모으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르테’를 찾기 위한 그 첫번째 지역은 ‘한국 전력공사’로 정해졌다.

**#2-2 나는 ‘한전’에서 태어났어**

‘한국 전력공사’... 줄여서 ‘한전’... 이곳은 이미 전력공급이 끊기고, 폐허가 된지 오래다.

건물 내부 바닥 곳곳에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과 그 잔해로 추정되는 것들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듯 갈라진 천장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곳에 누가 살고 있기는 한걸까…?’

(주인공과 소라의 시선 끝에 무언가 쓰러지는게 보인다.)

주인공 - 응….? 저게 뭐지..?

소라 - 누가 있는것같아!! 가보자!!!

주인공 - 앗….!! 기다려!!!

(날아가는 ‘소라’를 주인공이 따라간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연구일지로 보이는 서류뭉치가 있다.

*—연구일지—*

*x월xx일 - 인간과 전기를 합성시키면 걸어 다니는 발전소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인간과 전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주인공 - 전기와 인간을 합성했다고….?

소라 - 이 아이.. 쓰러진것같은데 괜찮은걸까?

쓰러진 것 인줄로만 알았던 소녀는 주인공과 소라가 대화하는 소리에 시끄럽다는 듯 뒤척였다.

?? - (인상을 찌푸리며)으으…… 시끄러워…..뭐야……

주인공 - 저기…. 괜찮아? 여기에서 혼자 지내는거야?

?? - 너희는 누구지…? 여기에는 왜 온거야?

주인공 - 우리는… 우리와 함께 ‘헤로도’에 맞서 싸울 ‘아르테’를 찾고있어.

?? -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

소라 - 우리가 적이었다면 너를 발견했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았을까?

라푼젤 - 좋아. 이해했어. 나는 ‘라푼젤’이야. 반가ㅇ…..?!?!?!?!!

조용했던 공간에서 대화소리가 흘러나오자 주변에 있던 몬스터들이 기척을 느끼고

주인공 일행을 습격해왔다.

**(전투)**

라푼젤 - (주인공의 강화능력에 감탄하며)너……굉장히 능력이 좋구나…?

라푼젤 - 맘에 들었어. 너희와 함께 할게.

**— ‘라푼젤’ 수집 —**

**#3-1 불장난은 위험해!(주유소)**

주인공 일행은 쉘터에서 조금 떨어진 대형 주유소에서 ‘아르테’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된다.

주인공 일행은 '아르테'와 자원을 찾기 위해 주유소를 탐색하러 가는 길목에,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낸 듯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다 남은 마른 가지**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목격한다.

'설마...... 헤로도의 짓일까...?'

**#3-2 화끈하게 다 태워버릴까?**

불씨의 잔해가 남겨진 흔적을 따라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주유소가 보였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인형이 보였고, 주인공 일행은 그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린 소녀가 석궁처럼 생긴 몸통 만한 캔들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 - (무미건조한 표정)성냥 사세요~ 성냥 팔아요~

주인공 - 응...? 성.….냥?

?? - (주인공의 반응에 장난기어린 표정을 지으며)성냥 사세요~ 성냥 안사시면~

-키득.... - 불태워버릴 거에요~

주인공 – ㅁ…뭐…???

그때, 조금은 화난 듯한 표정을 지은 ‘소라’가 염력으로 소녀가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를

공중에 띄운다.

?? – 앗!!! 내 라이터!!!!

소라 – 어린이는 이런 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면 안돼.

?? – 이리 줘!!! 내 꺼야!!!! 돌려 달라고!!

소라 – 그럼 일단 이름 좀 알려 주지 않을래?

티아 – ‘티아’ 내 이름은 ‘티아’야. 이제 빨리 내 라이터 돌려줘.

소라 –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돌려 줄게.

티아 – 약속해!!! 약속할게!!

소라 – 좋아~ 여기 있어~

티아 – 칫…….(꿍얼꿍얼….)

주인공 – 음…? 저건 뭐지…??

***끼에에엑* –––**

**(전투)**

**#3-3 안전교육이 필요해**

전투 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한 ‘티아’는 다시 한 번 강화된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린다.

티아 – (이체를 띈 눈빛으로) 뭐야뭐야? 어떻게 힘이 강화되는 거야??? 또 할 수 있어?

티아 – 나 다시 강화시켜줘!!! 저쪽 가서 얼만큼 강화되는지 확인해볼 거야!!!

소라 – 아까 약속 했잖아.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티아 – (손가락으로 주유소 끝을 가르키며)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확인할거야.

소라 – 주유소 근처에서는 불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거 몰라??

소라 –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라이터를 치워 야지.

티아 – 씨잉………

주인공 – 둘 다 그만해~

주인공 – 소라. 티아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도록 하자.

주인공 – 티아. 강화된 능력을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

주인공 – 다음번에 티아가 강화된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주인공 – 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티아 – 힝…… 지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강화된 힘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티아 – 알겠어. 지금 해보고 싶지만 참아볼게.. 대신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말아줘.

**— ‘티아’ 수집 —**

**< 캐릭터 별 제목>**

**# 싫어!! 무서워!!!(폐가 or 하수도)**

**# 악어의 눈물**

**# 그녀의 진실**

**# 너와 나의 연결고리**

**# 우리… 구면이죠?**

**# 취향저격 그녀**

**# 너에게 가는 길 100M 전**

**#사랑스러운 Girl**

**#백발백중의 명사수**

**#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